

中東部 海岸地域 빗살문토기 文化의 性格

-南海岸地域과의 關聯性을 中心으로-

李東注*

차례

I. 머리말
II. 中東部 海岸地域 빗살문토기 文化
III. 南部地域 빗살문토기 文化
IV. 빗살문토기의 編年과 起源
V. 맺음말

I. 머리말

빗살문토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분포범위를 보이고 있는 신석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이다. 器形은 圓底 혹은 尖底 深鉢形으로 분포범위는 서해안의 청천강유역으로부터 동해안 원산만 이남 지역에서 주로 분포한다. 구연부 短斜集線文과 동체부 및 저부에 沈線狀의 각종 기하문이 시문되어 있는데, 공반유물로서는 農耕具로 인정되는 석제 보습과 타제 및 마제 침두기(無莖式 石槍), 이등변 삼각형에 가까운 無莖式 兩翼磨製石鏃, 그리고 단면 반원상의 긴 갈돌과 鞍裝形 碾石, 扁平磨製石斧, 礫石製 漁網錘, 發火石 등이 있다.

그런데 이 토기 문화는 동해안이나 남해안지역의 경우, 下層 단계인 押引文土器와 층위적으로나 특징상 확연히 구분되지만 중서부 지역의 경우는 그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문화 단계에 나타나는 공통성과 함께 器形이나 문양 시문기법, 구성 등에서 지역적 차이점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상호 관계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절대연대에 있어서는 서해안지역의 대표적 유적인 암사동에서 현재까지 가장 이른 측정결과가 있기 때문에 형식학적으로 앞서는 대동강유역을 그 원류지로 보고 그 기원을 막연히 북방문화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

* 동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